

국제원유 가격하락과 日本の 대응

세계 제3위의 석유소비국이자 石油을 거의 전부 수입에 의존하는 日本은 최근 油價폭락에 따른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 대응책의 하나로 日本정부는 지난 4월 8일「綜合經濟對策」을 발표하였다. 이는 油價하락뿐만 아니라, 円貨강세에 따라 기업이 얻는 差益을 소비자에게 적정 환원함으로써 내수확대를 꾀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日本政府는 내수확대로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수입수요를 증가시켜 油價하락으로 日本의 경상수지 흑자증대에 따라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역마찰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日本은 현재의 低油價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에너지 안정공급대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日本은 에너지절약, 代替에너지개발 등으로 石油의존도 축소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이완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해외資源개발을 확대시키고 石油비축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거시적인 안목에서 에너지안정공급을 추구하고 있다.

低油價, 日本경제성장에 크게 기여

日本은 85년의 경우 하루 413萬배럴의 石油을 소비한 세계 제3위의 소비국이며, 소비량의 거의 전부를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油價하락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플러스 효과는 어느 선진국보다 클 것이다.

무역면에서의 영향을 보면, 우선 油價하락으로 日本의 石油수입액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85년의 경우 日本의 石油수입량은 12億 4,700萬 배럴이었으므로, 올해에도

— 産業研究院 —

같은 량이 수입된다고 가정하면 油價가 85년의 배럴당 28달러에서 86년에 18달러로 하락할 경우 石油輸入 감소액은 연간 125억 달러에 이르며, 石油製品수입의 감소까지 포함하면 연간 15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따라서 전체 수출액의 10%를 차지하는 對産油國수출의 감소와, 최근 円貨 강세에 따른 수출부진 등을 감안하더라도, 85년도에 526억 달러의 기록적인 수준에 달했던 日本 무역수지흑자는 86년도에 600억 달러를 훨씬 상회할 전망이다.

이러한 石油輸入 절감은 기업의 코스트를 하락시키어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물가를 안정시켜 소비를 증대, 성장에 이바지하게 된다. 日本經濟新聞社의 巨視模型에 의한 試算으로는 油價가 85년도 배럴당 27달러에서 86년도 20달러로 하락할 경우 실질경제성장률이 86년도에 0.5% 포인트 상승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5% 포인트 하락하며, 15달러로 급락할 경우 성장률은 0.9% 포인트 상승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9%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表 - 1)참조).

電氣·가스料金 6월에 인하

지난 해 배럴당 28달러였던 日本의 原油도입가격(C. I. F.)은 국내도입時差가 있어 지난 2월까지 27.58 달러로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으나,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락 배럴당 20.77달러, 4월에는 15~17달러로 될 것

으로 추정된다.

日本은 이러한 油價하락에 따른 이익이 石油産業이나 電力·가스業 등에서 소비자에게 적정하게 환원되도록 할 방침이다. 日本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綜合經濟對策」¹⁾은 円貨 강세와 油價하락에 따른 電力·가스業의 차익을 소비자에게 환원, 내수를 확대함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日本 通産省은 電力·가스業의 차익이 최소한 1兆 4,000億 円으로 추산, 6월에 전기·가스料金を 인하함으로써 이 중 70%인 약 1兆 円을 소비자에게 환원할 계획이다. 通産省은 「綜合經濟對策」이 86년도 GNP를 0.4~0.5% 포인트 상승시키고, 소비자물가를 0.7% 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石油産業의 경우, 油價하락에 따른 비용절감효과는 가장 크나 石油製品가격이 원칙적으로 시장기능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정부는 공정거래법 등을 통하여 談合을 저지 제품가격의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에너지 長期安定供給對策 強化

또한 日本은 현재의 石油공급과잉이나 低油價가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에너지의 장기안정공급을 위한 대책도 아울러 강화하고 있다.

두 차례의 석유위기를 경험한 日本경제는 지금까지 에너지절약 및 脫石油政策을 적극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

(表 - 1) 油價하락이 日本經濟에 미칠 영향¹⁾

		實質 GDP 성장률 (%)	소비자물가 상승률 (%)	경상수지 (10억 달러)	무역수지 (10억 달러)	輸出 (통관기준, 10億 달러)	輸入 (통관기준, 10億 달러)
배럴당 20달러로 하락 시	1986	0.5	-0.5	11.9	7.2	-2.4	-12.1
	1987	0.2	-0.4	10.9	8.4	-3.5	-12.4
배럴당 15달러로 하락 시	1986	0.9	-0.9	20.8	16.0	-4.3	-21.2
	1987	0.3	-0.8	19.4	14.9	-6.3	-22.0

註: 1) 日經 NEEDS Macro Model의 試算으로 油價가 배럴당 27달러일 때와의 차이임. 換率은 86년도 1 달러當 207.5 円, 87년도에 1 달러當 210円을 전제로 하고 있음.

(資料) 日本 外務省 經濟局 에너지課, 「石油價格下落의 影響(分析)」, 1986. 3.

註: 1) 이는 ① 公正割引率 인하를 포함한 금융정책의 기동적 운용 ② 공공사업의 금년 상반기 중 조기 시행 ③ 電力·가스料金 및 공공요금 등의 인하로 円貨 강세, 油價하락에 따른 차익환원 ④ 규제완화에 의한 市街地개발 촉진 ⑤ 주택건설, 민간설비투자 등의 촉진 ⑥ 금리인하를 중심으로한 中小企業지원 ⑦ 국제사회에의 공헌 등이 주 내용임.

(表 - 2) 日本의 國別 石油輸入 추이

(單位: 千B/D)

	1984		1985		전년비(%)
	導 入 量	比 重(%)	導 入 量	比 重(%)	
U. A. E.	562.3	15.2	727.4	21.3	129.0
사우디아라비아	1,001.2	27.1	593.7	17.4	59.1
오 만	231.5	6.3	301.8	8.8	130.0
이 란	257.4	7.0	246.3	7.2	95.5
중 립 지 대	219.7	6.0	221.5	6.5	100.5
카 타 르	220.1	6.0	198.9	5.8	90.1
이 라 크	14.5	0.4	71.6	2.1	429.6
쿠 웨 이 트	81.5	2.2	44.4	1.3	54.3
中 東	2,588.2	70.2	2,405.7	70.4	92.7
인 도 네 시 아	483.3	13.1	389.2	11.4	80.3
中 共	220.7	6.0	220.8	6.5	99.8
말 레 이 지 아	109.5	3.0	113.4	3.3	103.3
브 루 네 이	80.2	2.2	54.5	1.6	67.8
濠 洲	3.5	0.1	35.2	1.0	1,001.0
소 련	1.5	0.0	2.6	0.1	173.9
아 시 아	898.6	24.3	815.7	23.9	90.7
백 시 코	160.1	4.3	141.7	4.1	88.3
베 네 수 엘 라	16.4	0.4	10.3	0.3	62.6
中 南 美	176.5	4.8	152.0	4.5	86.9
이 집 트	15.7	0.4	42.5	1.2	270.7
알 제 리	9.0	0.2	-	-	-
아 프 리 카	24.7	0.7	42.5	1.2	172.1
計	3,688.0	100.0	3,417.7	100.0	92.4

(資料) Petroleum Pres Bureau, Ltd., Petroleum Economist, March 1986.

를 거두어 왔다. 예컨대 산업의 하이테크化(이른바輕薄短小化)등 에너지절약으로 인해 GNP單位當 에너지소비가 79년 0.24에서 84년 0.17로 줄었으며, 石油수입은 같은 기간 중에 하루 491萬 배럴에서 369萬 배럴로 감소하였으며, 1次에너지源 가운데 石油의 비중은 72%에서 59%로 떨어졌다.

日本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에너지절약 및 石油依存度 축소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通産省 資源에너지廳은 石油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착실히 진척시켜 오는 95년도에는 현재 전체 발전량 중 26%를 차지하는 원자력의 비중을 35%로 높이는 반면 石油은 25%에서 16%로 축소시킬 방침이다.

또한 공급애로에 대비한 石油비축사업도 강화할 계획

이다. 지난 75년 12월 石油備蓄法을 제정, 민간업자에게는 90일분의 石油를 비축하고 政府는 35일분을 비축하게 하였는데, 低油價의 이점을 활용 정부비축량은 40일분으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海外石油의 자주개발도 크게 늘릴 계획이다. 日本은 中東을 중심으로 18개 지역에서 자주개발을 실시했고, 현재에도 40개 지역이 시추 중이며, 지난해 自主開發石油의 수입은 전체 石油수입의 11%에 달했다. 日本정부는 지난해 말 해외개발석유의 국내수입을 의무화한 조항을 폐지, 판매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등 해외石油개발을 적극 장려, 오는 1995년까지 전체 石油수입 중 해외개발石油의 도입 비중을 35%까지 끌어올릴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 밖에도 日本 정부와 기업은 油價 폭락과 円貨 강세의 유리한 여건을 활용, 油價 폭락으로 폐업에 직면한 세계 각 油田의 염가매입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貿易黒字 축소 노력도 경주

한편 日本은 油價 폭락에 따른 石油 수입대금 격감으로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늘어나면 무역마찰이 한층 격화 될 것으로 보고 무역흑자 축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綜合經濟對策」은 한편으로는 貿易黒字 축소 노력도 포함하고 있다. 즉 油價 하락 및 円貨 강세의 차이으로 소비자의 可處分所得 증가를 도모하는 한편 수입소비재의 국내가격하락을 유도함으로써 수입수요를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首相의 개인 자문기관인 「국제협조를 위한 經濟構造調整研究會」는 지난 7일 日本 經濟의 중장기적 종합대책으로 발표한 보고서²⁾에서 세계경제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日本은 지나친 국제수지 흑자로 인해 위기적 상황에 있다고 경고하고 국제협조형 경제구조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7개 항목의 구체적인 제안 가운데 산업정책으로서 국내 石炭生産을 대폭 축소하고 해외 石炭輸入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日本 通産省은 금년 6월부터 8개 石炭會社의 장기채산성 등을 검토하여 점차 국내석탄생산을 축소시키고 해외석탄수입을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綜合經濟政策」의 내수확대에 따른 수입증대 방안은 日本의 무역흑자 크기에 비해 그 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예상되며, 海外 石炭輸入擴大나 앞서 언급한 해외 石油 자주개발의 확대는 자원보유국과의 무역마찰 해소에 다소 기여할 뿐이어서 전반적으로 무역마찰의 격화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油價安定을 위한 선진국 공동노력 제창

日本은 油價 급락이 세계 경제에 바람직하지만은 않으므로 油價를 안정시키기 위해 선진국들이 공동 노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石油 의존도가 높아서 여타 선진국보다 油價 하락의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日本이 오히려 油價安定을 희망하는 것은 油價의 급속한 하락이 ① 장기적으로 선진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② 開途國 외채위기를 야기, 국제금융질서를 교란시킬 우려가 크며, ③ 산유국의 경제난이 石油 소비국에게도 점차 파급될 것이고, ④ 石油 代替에너지개발 및 사용 노력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 日本이 油價 안정을 바라는 속셈은 油價 급락시 ① 日本 경상수지 흑자증대로 對日 무역마찰이 격화되고, ② 円貨 강세를 가속화시키며, ③ 韓國, 臺灣 등 경쟁국들의 경쟁력이 油價 하락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데 있다.

日本이 제시한 先進國 공동협력방안으로는 ① 선진국들의 石油 備蓄 증대, ② 소비국 에너지長官間的 정기 협의회 구성, ③ 에너지代替, 新技術 공동개발, ④ 英國의 생산방임정책 재고 촉구, ⑤ OPEC의 경쟁 자재요청 등이다.

이 문제는 5월에 東京에서 열리는 선진 7개국 정상 회담의 정식 의제로 채택 논의될 예정이다. 최근 美國은 石油産業이 큰 타격을 입고 있어 油價 안정을 모색할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英國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여타 선진국들도 油價 하락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도 長期的 眠目에서 대응책 수립해야

이같은 日本의 油價 하락에 따른 대응전략은, 비록 경제발전단계나 경제체질은 다르지만 국내부존에너지 資源이 빈약하고 石油 依存도가 높다는 점에서 여건이 日本과 비슷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국내 油價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이러한 油價 하락의 비용절감효과가 제품가격의 하락을 통하여 대외적으로는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대내적으로는 소비자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여건변화에 앞맞는 중·장기 대책의 수립이라 하겠다. 장기적으로는 油

註: 2) 주요 내용은 ① 규제완화 등을 위한 도시재개발사업, ② 週 5일 근무제 등 내수확대책, ③ 국내 石炭産業 감축으로 해외석탄수입확대, ④ 해외직접투자의 적극 추진, ⑤ 금융자유화 및 국제화의 적극 추진, ⑥ 開途國과의 경제협력 강화, ⑦ 재정, 금융정책의 효율적 운용 등임.

價가 반드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예기치 못한 공급애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기 에너지수급대책을 더욱 보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첫째, 수요면에서 低油價의 영구화라는 그릇된 인식에서 탈피하여 그동안 지속되어 온 에너지 절약 노력이 무분별하게 이완되지 않도록 하며 石油存依度 감축정책을 계속 추진하되 에너지源別 수요구조

의 합리적 선택기준을 마련하고, 둘째 공급면에서는 低油價를 활용 석유비축과 자력개발 등을 고려한 장기 안정공급방안을 강구하며, 세계 가격정책으로서 에너지價格의 정부규제 범위를 점차 축소시켜 점진적으로 가격기능을 제고하는 등의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산업경제정보 4/18)

〈表 - 3〉 日本의 에너지源別 1차에너지 消費 및 構成比

(單位 : 石油換算 百萬 噸 (MTOE))

石油	油炭	1973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消費	構成比 (%)	消費	構成比 (%)	消費	構成比 (%)	消費	構成比 (%)	消費	構成比 (%)	消費	構成比 (%)	消費	構成比 (%)
石油	油	269	77	265	72	238	66	224	63	207	61	207	61	215	59
石油	炭	54	16	50	14	57	16	64	18	62	18	63	18	64	18
天然	가스	5	1	20	5	23	6	24	7	25	7	25	7	33	9
原子	力	17	5	19	5	21	6	20	6	20	6	28	8	31	9
水	力	3	1	16	4	21	6	22	6	26	8	20	6	20	6
計		348	100	370	100	360	100	354	100	340	100	342	100	362	100

(資料) : The British Petroleum Company p.l.c.,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各號

産油國動向

西歐石油會社 리비아에서 철수안해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서구 石油會社들이 리비아에서 철수하지 않는 이유는 리비아가 石油開發에 있어서 비용회수후의 최저 이익 마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파리에서 발행되는 주간지 Petrostrategis紙가 보도했다. 리비아는 최근에 채택한 이러한 政策에 따라 이전의 生産分配契約 또는 合作投資 형태의 契約상 稅制條項을 동결시켜 놓고 이들 契約을 나이지리아가 채택하고 있는 契約 형태와 비슷한 잠정적 契約으로 대체시켰다.

Petrostrategis紙에 의하면 리비아 政府는 매달 달마다 原油市場의 판매가격을 적용 순이익 마진을 계산하고 있으며 이를 각 石油會社에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마진은 價格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는데 石油價格 下落 이전에는 배럴당 1.5~2달러였던 것이 현재는 배럴당 1달러이다. 石油會社들이 철수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

유는 Agip이나 Occidental 과 같은 石油會社들이 너무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Agip은 수억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를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Bouri 매장량을 개발, 生産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될 立場에 처해 있는 것이다. 한편 이 주간지는 리비아의 石油輸出이 4月 마지막주에 크게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 주간지에 따르면 Brega Petroleum Marketing Co는 美國의 公營 하루전에 8만 DWT의 탱커를 용선했으며 公營후에 같은 능력의 탱커 5척을 더 용선했는데 탱커에 선적한 120만톤의 原油를 Brega社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많은 石油會社들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즉 그 原油를 그대로 유조선에 저장할 것인가 즉시 판매할 것인가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판매를 한다면 지중해 現物 原油價를 다시 떨어뜨리는 새로운 요인이 될 수 있다.